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 城北區 安岩洞
 5 街 134-5
 電 話：923-4372

開發制限私有林 國有林과 交換 희망山主 연말까지 관할市·郡에 신청

政府는 내년부터 山林法에 묶여 그동안 正常施業이 제한되었던 保安林, 天然保護林, 採種林등의 私有林에 대하여 市·道에서 管理하고 있는 不要存國有林과 交換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 山林法上 保安林이나 天然保護林등으로 指定되어 所有者가 林木伐採, 土地의 形質變更등 정상사업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빚어지는 不利益에 대하여 國家가 當해 山林을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實績이 전연없어 民怨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인데 금번 私有財產權 保障에 대한 積極적인 塔개책의 일환으로 '87 山林施策에 反映하여 交換을 實施하게 된것으로 그 主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交換對象

保安林, 天然保護林, 試驗林, 採種林

計		保 安 林		天然保護林		採 種 林	
필 지	면적 (ha)	필 지	면적 (ha)	필 지	면적 (ha)	필 지	면적 (ha)
105,340	337,882	105,055	336,702	213	1,004	72	176

2. 交換可能 國有地

○ 山林廳 소관 國有財產으로서

가. 山林法上 不要存國有林으로 구분된 財產中 雜種재산인 林野.

나. 雜種財産인 田, 畓등 土地.

다. 현재 保存財産일지라도 管理廳이 앞으로 5年内 使用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거나 國家가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財産은 用途廢止後 交換이 可能.

市·도별 교환가능 國有林

(단위; ha)

구분 시도별	임 야		전 답		구분 시도별	임 야		전 답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합 計	33,416	125,837	26,506	3,650.47	忠 北	2,722	19,158	4,426	573
서 울	265	198	1	0.07	忠 南	3,332	10,406	1,612	190
釜 山	470	1,023	4	0.5	全 北	6,103	11,565	7,072	640
大 邱	71	71	8	0.3	全 南	7,077	19,581	5,778	698
仁 川	662	488	108	11.6	慶 北	3,207	18,622	2,322	581
京 畿	4,218	9,289	2,758	405	慶 南	3,245	20,285	1,336	146
江 原	1,847	14,445	1,081	405	濟 州	197	706	-	-

※ 貸付地 및 分收設定地의 總閱을 실시하여 成功가망이 없는 임지는 정리 회수하여 교환 대상 재산을 확보한다.

3. 交換節次

- 교환을 희망하는 산주는 우선 本人의 林地가 法定制限林인지를 確認
- 市·郡 (綠地課, 山林課) 에 비치된 國有財産台帳, 土地台帳등을 열람
- 交換國有對象地를 選定 : 現地確認
- 交換希望地로 판단되면 市·군에 교환신청

4. 유의할 점

- 交換申請書는 교환을 희망하는 國有地가 所在한 市·郡에 提出
- 財産의 交換은 市·道, 市郡管轄區域內에서 相互交換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市郡間 市道間 조정 실시할 수 있다.
- 交換은 希望하는 山主에 한하여 實施하며 경합이 있을 때에는 지정된지 오랜 林地부터 우선 實施한다.
- 交換대상 財産上에는 地上權등 私權設定이 없어야 한다.
- 交換財産은 一方의 財産價額이 他方의 財産價額의 3/4 이상이어야 한다.
- 財産의 評價는 市價를 참작하여 決定하되 財産價額이 300 만원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國有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財務部가 指定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0 만원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內務部令이 정하는 鑑定機關에 評價를 依頼하고 그 評價額을 참작하여 決定한다.
- 鑑定機關에 財産의 評價를 의뢰한 경우 私有林의 鑑定料는 그 所有主가 負擔한다.

山林施策建議에 대한 答信內容

題 目	建 議 內 容	回 答 內 容
<p>○ 광산용 艍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관청 ; 국세청)</p>	<p>○ 原木을 伐採 都賣業을 하는 者는 현재까지 附加價値稅法 第12條 規定에 따라 면세업으로 인정하여 綜合所得稅 申告로서 稅金을 納付하여 왔으나</p> <p>○ '86.1.27일자 某氏의 질의에 의하여 광산용 艍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이라는 國稅廳長의 回信文에 따라 관할 稅務署에서 課稅코자한다는 內容으로 이의 不當性을 지적하여 是正을 促求.</p>	<p>○ 광산용 艍목의 경우 단순히 運搬의 편의를 위하여 切斷된 原木과 그 性狀이 類似한 것은 附加價値稅가 免稅되는 財貨로 처리토록 조치 하였음을 통보, (계속 면세조치)</p>
<p>○ 軍事施設保護區域內에서의 營林計劃編成등 正常施業促求 (所管廳 ; 國防部)</p>	<p>○ 軍事分界線이남 27 km의 廣域한 軍事施設 保護地域內에도 營林計劃編成으로 正常施業이 될수 있도록 山林法改正에 協助要請</p>	<p>○ 保護區域內에서의 營林과 開發은 軍事施設保護와 作戰에 影響을 미치는 사항이 있으므로 포괄적인 協議 또는 承認을 前提로 한 山林法改正은 곤란하고</p>

題 目	建 議 內 容	回 答 內 容
<p>○ 林道施設資金補助 (所管廳; 山林廳)</p>	<p>○ 현지 관할指揮官이 軍事作戰上 重大한 障礙가 마치지 않는한 郡守의 施業提議를 용이하게 承認할 수 있도록 協助要請.</p> <p>○ 區域面積 500 ha以上을 200 ha 이상으로 완화.</p> <p>○ 施設單費 km當 19,081 千원은 기준 단비로서 工事의 難易度에 따라 伸縮性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 일선 執行官署에서 꼭 單費만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음.</p> <p>○ 林道の 최대중단 구배 14%이내는 너무 완만하게 工事를 하여야 하므로 자연 切土부분이 많아 工事費와 事後 維持補修費가 많이 소요되므로 22%까지로 완화</p> <p>○ 山林組合에서 최대한 실행토록 하게 하므로써 의당 山林組合에서 實行하고 있는바 大部分의 山林組合이 技術과 裝備不足으로 下都給을 주는事例가 있어 工事의 不實을 초래—實力이 인정되는 篤林家에게는 自体 實行토록</p> <p>○ 公私有林에 局限하지 말고 貸付 國有林에도 施設補助 支援이 가능토록.</p>	<p>○ 郡守가 具體的인 營林計劃 및 開發計劃에 대하여 관할 軍部隊長에게 사전에 協議하여 동의를 얻은후에 그 시행이 가능하도록 措置.</p> <p>○ 區域面積 500 ha以上이라고 함은 優先順位를 定한 것임으로 500 ha 미만도 시설이 가능함.</p> <p>○ 기준시설 單費이므로 그 미만으로도 시설할 수 있고 초과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초과경비는 自力負擔으로 하여야 함.</p> <p>○ 이용상의 어려움과 노선 및 노체파손 우려가 있어 불가함.</p> <p>○ 山林組合의 育成과 治山事業所로 하여금 최대한 實施토록 하고 있으나 山主가 設計 및 施工能力이 있으면 山主直營 施工이 可能함.</p> <p>○ 관계 規定 및 貸付目的등을 檢討하여 처리코자 함.</p>

林業育林裝備・산불진화장비

有 備 物 產 (株)

代表理事 朴 浩 鎮

서울特別市 鍾路區 忠信洞 27-8

전 화 : 762-8588, 8589

山林經營의 先覺者 故 晩悟 鄭泰星

會長 韓 榮 錫

先生은 1899년 12월 27일 이 세상에 왔다가 1986년 1월 18일 돌아감으로서 만 85년여를 在世하였다. 先親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그의 生涯를 요약하면 企業家인 동시에 造林家요, 育英事業家이며 宗教指導者였다.

검소한 생활로 理相의 世界를 開拓하여 가다 간 그는 盛昌企業의 創業者이며 盛昌그룹의 總帥인 동시에 企業에서 얻어진 收益으로 많은 造林과 自然존중의 天然林保育을 성실히 해 나갔으며 釜山外國語大學을 創設하여 英才輩出과 基督教指導者로서 社會教化에 진력한 존경받는 분이였다.

筆者는 先生과 근 40년간 면접해 왔다. 商去來와 山林問題論談이었으나 언제나 溫和한 웃음의 얼굴이었으며 당신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남의 말을 경청하며 묻기를 잘하고 確證性이 강한 편이었다. 그리고 虛實없는 훌륭한 企業家였다.

그러면서도 山林論에 이르면 열떠어 國政是非에 이른다. 國家山林經營을 소홀히하는 大統領은 國家指導者의 資格이 없다고까지 極言을 서슴치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治山, 育林事業을 國家最優先事業으로 推進해 나가야 진정한 국가안정과 發展을 이룰수 있으며 山林을 등한히해서는 나라의 經濟와 文化가 공고하게 다져져 나갈 수가 없다고 강변을 한다.

이에 그가 79년 서울經濟新聞『財界回顧』에 연재발표한 글중에서 愛林에 관한 부분을 옮겨보면 『내 소년시절의 꿈은 育林에 있었다. 나는 근 50년에 걸친 집념과 각고 끝에 오늘날 수천정보의 산림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곳에 자란 나무의 추정 재목량은 9천만타가 넘으며 그중에 내가 심은 나무만도 1천만 그루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령 경북봉화의 4천3백 정보에는 33만개의 나무가 자라났다. 40~80년생 춘양목이 울창한 玉房林野를 생각하면 나는 언제나 내인생 자체의 울창함을 실감케 되는 것이다.

나는 오늘날까지 주로 헐벗은 산을 사서 나무를 심어왔다. 그리고 손수 만든 묘포장에서 가꾼 묘목을 심을 때는 더욱 보람을 느껴왔다. 나는 30여년간 합판이라는 목재 가공업도 아울러 경영하고 있다. 현재 내 아들들의 생산 수출량까지 합치면 연 1억 5천만달러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나로서는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려는 집념이 언제나 공장 경영보다 우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세상에 나무만큼 것짓고, 가꾸는 이에게 어김없이 응분의 보답을 주는 생명체는 없다. 나무를 가꾸어 가노라면 나무가 내게 말을 속삭이고, 그 속삭임을 듣는 것이 나의 보람이다.

나무의 속삭임, 거기에는 대자연의 숨결이 있다. 나뭇잎의 염록소는 피곤한 우리의 마음에 자양을 주며 휴식을 준다. 우리가 간 다음에도 영원토록 울창한 숲을 생각하면, 우리들 인생이 하여야 할 바를 생각케 된다. 그리스의 고사에, 아침에는 네발로 걷고 낮에는 두발로 걸으며, 저녁에는 세발로 걷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두발로 걸어다니며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는 보람으로 사는 것이다.

지구의 종언이 내일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한 명언이 있다. 바로 그 정성이야말로 오늘날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온 핵인지도 모른다. 百壽에도 못 미치는 수유의 인생이 말없는 월광, 임자없는 태고풍과 더불어 영겁의 믿어올 속삭여 온 숲속의 나무 그늘에서 짧은 역정을 반추하고 관조해 보려는 소치도 거기에서 연유된다 할 것이다.』

이제 그가 남긴 林業實績을 살펴보면

1. 林相別面積 및 蓄積 (本表는 盛昌林園開發欄의 것으로서 以外것은 不包含.)

합 계		입 목 지								무 입 목 지			비고	
면적	축적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계	미입목지	제지		초지
		면적	축적	면적	축적	면적	축적	면적	축적					
ha	m	ha		ha		ha		ha		ha	ha	ha		
9,170.11	389,193	8,701.42	389,193	6,128.66	311,495	1,052.38	20,599	1,520.38	57,099	468.69		396.69	72.00	

2. 造林實績

지역 별		조림년도	조림면적	조림수종	조림본수	비고
시	도					
경북	봉화	60 ~ 84	1,150.19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해송, 현사시	3,428,950	본
	안동	68 ~ 82	157.94	낙엽송, 리기다, 잣나무	471,820	
	영풍	73 ~ 79	95.00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285,200	
	의성	76 ~ 80	73.00	낙엽송, 리기다	219,000	
	영양	78	5.30	낙엽송, 잣나무	15,900	
	계			1,481.43		4,420,870
경남	김해 (시군)	69 ~ 82	534.74	낙엽송, 편백, 리기다, 삼나무, 해송	1,467,600	
	양산	71 ~ 80	309.50	낙엽송, 편백, 리기다, 잣나무, 삼나무	869,700	
	울주	73 ~ 78	191.00	낙엽송, 잣나무, 편백, 리기다	572,000	
	거제	76 ~ 77	5.30	편백, 삼나무	15,900	
	계			1,040.54		2,925,200
부산		79	0.20	히말리야시다	400	조림대부 국유림
충북	단양	68 ~ 76	184.15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675,050	
합계		60 ~ 84	2,076.32		8,021,520	

3. 伐採實績

總蓄積量 389,193 m³중 伐期令이 훨씬 넘은 林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 벌채량은 단 13,700여 m³로써 이것도 솔잎혹파리피해목을 제거, 조림지 지장목제거 활엽수 무육을 위한 표고자목생산등 收穫收入을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育林成長만 바라왔으며 이로서 그의 愛林哲學이 躍如한 말 그대로의 眞面目을 알수 있다.

4. 保有蓄積展望

1 ha당 평균축적 1978년 36 m³, 1984년 43 m³, 1990년 61 m³, 2,000년에 100 m³축적을 목표로 육림을 하여 나갈 계획이라 한다.

이상으로 先生은 우리 林業史에 얼마나 강한 산림경영의 巨木이였는가를 理解할 수 있으며 先生의 오른팔로 林業經營를 設計추진하는 林園開發의 차석정 이사는 그가 바치는 追慕辭중에서 「自己가 심은 나무를 自己一代에서 수확할 수 없는 장기적인 林業의 特殊性속에서도 누구나가 하는 산술적인 계산을 度外視한 채 또 造林事業은 山에다 돈을 내다버린다는 世俗의 상식속에서도 이에 掛念하지 않으시고 後代를 위한 世襲林業으로 初志一貫하여 育林에 온 精力을 기울여 오셨읍니다」 라고 추모하였다.

우리 山林經營者 一同은 장하신 先尊者에게 삼가 敬意를 표하며 先生의 崇高하신 精神을 본받아 우리나라 山林을 세계에 으뜸가는 山林으로 경영해 나갈 것을 다짐해 마지 않는 바이다.

先生이 자신後 同社는 次男인 鄭海秀씨가 代表理事로 就任했고 先親의 遺志를 받들어 더욱 前進하는 現代林業으로 경영해 나갈 것을 設計하고 있다. 同社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

造林貸付 國有林 讓與를 促求하며 貸付林內에도 林道施設 資金支援을 呼訴함.

忠北支部長 李 陽 雨

倭政治下와 6.25 激動期下에 收奪林業으로 말미암아 山林이 極度로 荒廢되었던 지난날, 政府의 힘만으로는 國土의 早期綠化가 어려웠음을 判斷하였음인지 소위 國有林 造林貸付라는 制度를 만들어 造林後 5年 이상이 되고 평균 立木度가 7/10 이상인 成功林地에 대하여는 受貸付者에게 無償으로 讓與하도록 하는 制度가 있었음은 林業人들에게는 널리 잘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그래서 일부 山林先覺者들은 國有林을 貸付받아 家産을 전부 쏟아 냈다시피하면서 荒廢地復舊造林을 위하여 渾身の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어떤 理由에서인지 造林이 成功된 林地에도 國家가 일방적으로 契約을 違約하고 讓與를 中斷하고 있는지가 오래되었다.

이는 분명 意圖의인 것은 아니더라도 結果的으로 國家가 國民을 眩惑欺瞞한 것이다.

造林이 成功되면 無償讓與하여 준다는 契約締結로서 국가와의 약속과 信望을 굳게 믿고 아무런 收益도 없이 매년 地價基準額의 3% (근간은 1%)의 貸付料를 계속 納付하여 왔으니 貸付期間이 20年이 된 사람은 이미 林地價格의 60%를 국가에 납부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私有林의 경우와는 달리 政府로부터 補助나 融資 其他 하등의 支援惠擇이나 收益없이 어려운 제반 苦難을 무릅쓰고 造林, 育林과 保護管理에 막대한 資本과 努力을 投入 (私債도 많아지고 家産湯盡狀態의 實情도 있다.)하여 천신만고 끝에 이제 겨우 山林造成을 이룩하여 놓으니 이제는 國有財産保存施策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讓與는 중단된 채 근년에는 土地等級만 올려 貸付料가 從前納付額의 3배가 넘는 實情이다.

政府의 物價施策은 한자리 수로 억제한다면 이 해도 너무하다 싶다.

아무리 強力한 국가기관과의 契約이라 하더라도 契約은 相互對等한 地位와 權力下에서 이루어진 私法的 法律行爲로 사료되는데 오히려 국가가 이를 違約하려는 함은 父母가 子息을 속이고 欺瞞하는 행위나 뭐가 다를바가 있으며 이는 國民을 眩惑欺瞞하는 행위이니 이래가지고 社會安定과 國民總和를 이룩할 수 있단 말인가?

一般養畜農家가 기르던 소값이 暴落하였다거나 돼지값이 떨어졌다하여 기르던 소를 때려 죽였고 養畜農民들이 데모를 하였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들 養畜農民들은 모르긴 해도 1년 아니면 2~3년의 결과로 損害를 보아 그런 짓을 한 것이다.

우리를 造林人들은 철들어 나무를 심으면 自己代에는 收穫조차 할 수 없으면서도 온갖 制約을 克服하면서 묵묵히 山林造成을 이룩하였으나 收支算價面에서는 데모를 하였다는 養畜農家보다도 甚도가 더 클 것이다.

그렇다고平生을 걸쳐 만든 作品(?)에 불을 지를수도 없고 데모할 수도 없는 딱한 受貸付者들의 처지를 당국은 하루속히 헤아려 積極의이고 성의있는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國有財産保存施策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해 본들 우리는 複雜한 規定은 알 수도 없고 알 必要도 없다. 다만 讓與를 한다고 契約을 하였으면 契約을 履行하는 것이 당연 論理이지 그 이상의 複雜한 무슨 다른 論理가 더 必要한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當局은 하루 속히 契約履行을 推進實行하여 國家의 權威와 信望을 國民에게 보여주고 官民和合, 國民總和를 이루는데 一助가 되게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合理的 山林經營을 위하여는 가장 急한 基本施設인 林道施設에 있어 造林貸付地內에도 一般 私有林에서와 같은 國庫補助林道를 施設하게 되면 自己負擔 20%만이라도 民間資本이 國有地에 投資되는 格인데 向後라도 국가가 損害불 일이 아닐 뿐 아니라 林道는 消費性施設이 아니고 多目的으로 국가적 이익을 追求할 수 있는데도 약간의 制度的 施策의 결함때문에 貸付國有林의 經營合理化를 期할 수 없다면 이는 어딘가 制度나 施策의 모순임으로 당국은 과감히 이를 是正하여 貸付國有林內에도 林道補助施設이 可能하도록 措置있기를 呼訴하는 바이다.

春陽木자생지에 솔잎혹파리 피해극심

—송이 소득원도 위협받아 대책시급—

솔잎혹파리 被害先端地가 전국적으로 擴散됨에 따라 그 被害가 크고 驅除方法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는 비록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針葉樹種중의 가장 代表的이며 材質과 生長이 좋아 世界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春陽木의 自生地인 경북봉화군, 영풍군 일원에 피해가 극심하여 이곳 山主들은 國家的次元에서의 驅除대책이 시급함을 呼訴하고 있다.

이곳 山林關係者들의 말에 의하면 이대로 放置하면 조만간 소나무는 전멸위기에 있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적극 권장할 만한 造林樹種이 빈약한터에 춘양목마저 자취를 감추게 될까봐 염려된다 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산주들은 松茸생산에 의한 산림소득이 林木年長에 의한 산림소득보다 몇배 상회하여 山林소유 農家들의 큰 所得源으로 重要的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驅除方法의 어려움과 豫算의 不足으로 속수무책으로 애태우고 있다.

봉화군 산림관계자에 따르면 85년도 봉화군내의 송이수입만도 연간 44억여원에 달했으며 松茸의 질도 다른 어느곳보다 제일 좋다고 하는데 樹幹주사등 驅除所要예산은 줄잡아 5억여원이 들것이지 마는 송이 소득액으로 보나 춘양목 보존이라는 시책적인 면을 고려할때 특별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力說하고 있다.

<會 員 公 知 事 項>

林業先進地 視察案内

◎ 國 內

- 日 時 : 1986. 6. 27
- 場 所 : 林業試驗場 光陵試驗林
- 會 費 : 없음 (協會負擔)
- 參加申請 : 既 公文으로 發送한 返送用 우편엽서에 표시하여 6. 21 까지 필착하도록 反送하여 주시거나 전화 923-4372 로 신청을 바람.
- 集合場所 : 出發당일 11:00 에 본회사무실 (안암동 로타리) 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모임.

◎ 國 外

- 對 象 國 : 日 本
- 期 間 : 10 日間豫定
- 出發日時 : 確定된 會員에게 별도 개별통지할 것이나 9~10 月경
- 視察內容 : 林業視察 및 林業關聯特作事業 (표고促成施設栽培全天候生産, 小經木利用加工實態 등)
- 所要經費 : 日程이 確定되면 額數를 個別 通知할 것이나 160 만원 내외 예상.
- 參加申請 : 別途 送付한 返送用 엽서에 표시하여 6. 30 까지 送付하여 주시거나 전화 申請도 可함.

(923-4372)

표고의促成(施設)栽培

林業試驗場 林産化學科
林業研究士 尹 甲 熙

1. 序 言

표고는 지금으로부터 約 270 年前부터 日本에서 栽培되기 始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05 年 濟州 島에서 처음 人工栽培가 行하여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栽培者 大部分이 山間 自然栽培에 의존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이러한 自然栽培는 春秋에만 可能하고 本格的인 收穫도 接種後 2 年이 經過해야하므로 資本의 回轉이 늦을뿐 아니라 栽培場所의 立地的 條件때문에 (山間奧地) 集約的인 年産 및 出荷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여러가지 改善點이 要求되어 왔다. 이러한 여러가지 問題를 解決하려는 研究가 繼續되어 오늘날에는 促成栽培(施設栽培) 方法이 開發되어 接種當年에 버섯을 收穫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어느곳에서든지 栽培가 可能하고 1 年내내 良質의 버섯을 生産할 수 있게 되어 표고栽培分野에 커다란 轉換點을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많은 栽培者들이 促成栽培方法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冬期間의 栽培方法을 中心으로 最近 栽培技術을 간단히 紹介하여 보고자 한다.

2. 種菌의 選定

冬期發生用으로는 山聯 1 號, 山聯 2 號와 같은 中低溫性 系統의 種菌을 選定하는 것이 좋고 夏期發生用으로는 高溫多濕에 高溫性 또는 中高溫性系統의 種菌이 좋은데 現在 우리나라 普及種菌중에서는 山聯 3 號가 가장 適當하다.

3. 種菌接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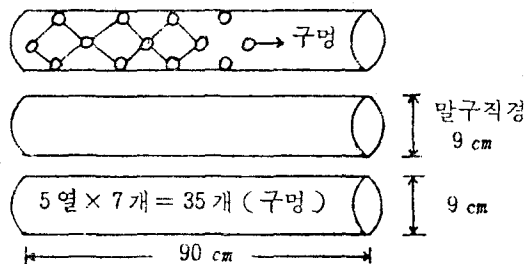
가. 資 木

資木으로 使用할 樹種은 상수리나무, 신갈나무等 참나무類가 좋으며, 伐採時期는 늦가을 落葉지기 前이 좋다. 伐採後 約 1 個月 前後에 接種한다.

原木(도막치기) 規格은 직경 6~14 cm (平均 徑級 9 cm), 길이 0.9~1.0 m가 좋다.

나. 接 種

표고드릴等으로 깊이 약 20mm깊이의 구멍을 資木 1 個當(末口直徑 9 cm, 길이 90 cm 基準) 35 個內 外로 다음 그림과 같이 뚫고 接種하는데, 種菌投入量은 보통 種菌 1000 g 에 資木 20 本의 比率로 하면 適當하다.



《資木구멍뚫는 方法 및 規格》

4. 菌絲發育促進

接種이 完了된 楢木을 하우스內에서 우물(井)자로 쌓되 地上部에서 90 cm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井積된 楢木과 楢木의 間隔을 90 cm로 띄어서 空氣의 流通을 좋게한다. 이때 室內의 溫度는 15~20℃로 維持함이 좋고 濕度는 60~70%를 維持시킨다. 室內가 乾燥할시는 바닥에 澆水해주고 비닐로 楢木을 덮어준다. 過乾 또는 過濕하지 않도록 注意를 要한다. 特히 이 期間은 種菌의 活着이 不完全한 時期이기 때문에 通風이 좋지 않고 過濕하면 雜菌의 浸害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井積된 楢木의 뒤집어 쌓기는 20~30日에 1회씩 實施하여 菌絲가 곧고루 잘 生育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管理하면 接種後 9個月에는 發生操作을 通하여 早期 버섯生産을 할 수 있다.

5. 楢木의 發茸抑制

前述한 바와 같이 楢木의 菌絲發育을 良好하게 하도록 管理하여 接種後 9個月쯤되면 하우스內에서 發茸抑制가 必要하지 않고, 1回生産後 即, 2回 生産때부터 實施한다.

抑制期間은 接種種菌이나 楢木의 狀態에 따라 다르나 普通 30~40日이고 길어도 2個月을 넘기지 않는다. 室內의 溫度는 15~20℃를 維持해주어야 하며, 비나 눈이 오지 않는 곳에서는 林內, 또는 人工楢木場에 우물정(井)字 모양으로 쌓고 비닐이나 합석 또는 스텔트판으로 덮어준다.

6. 楢木의 浸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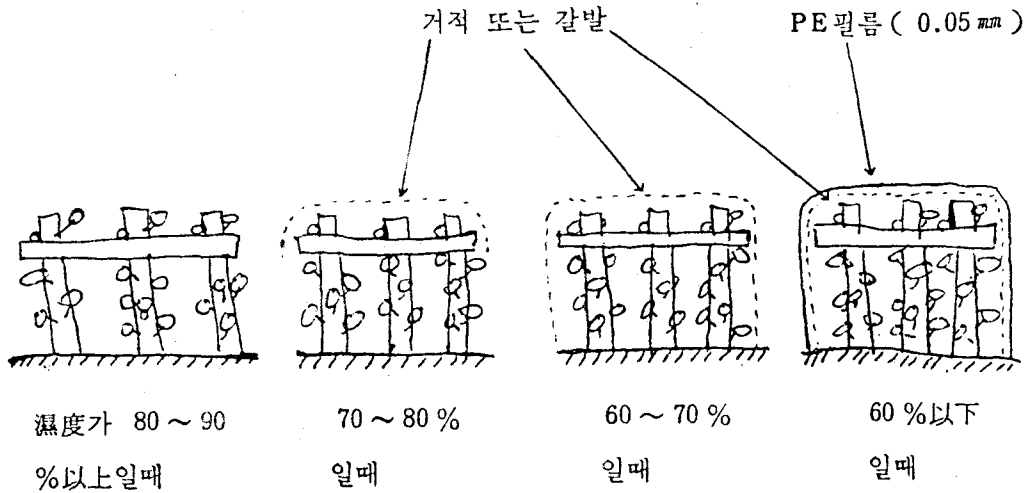
楢木의 菌絲活動을 旺盛하게 하여 品質이 均一한 良質의 버섯을 生産하기 爲하여 抑制시킨 楢木을 發茸操作을 위하여 浸水作業을 實施하는데, 水溫은 물이 얼지 않을 程度면 큰 지장이 없으나 中高溫性 系統의 種菌을 接種한 境遇에는 10℃以上 維持함이 좋다. 浸水時間은 24~28時間이며 楢木의 水分狀態에 따라서 多少 調整된다.

7. 浸水楢木물빼기 및 發茸操作

浸水楢木은 7~20℃(最適 12~18℃)의 室內에서 2~5日間 물빼기를 한 다음, 發茸操作을 實施한다. 發茸操作의 主目的은 버섯發生에 必要한 楢木水分을 維持시키고 濕度를 調節하며 樹皮의 폴크質을 軟化시킴과 同時에 發茸된 어린버섯의 水分 變化를 防止하여 均一한 品質의 버섯을 多量 發生시키는데 있으며, 이때 發生濕度는 中高溫性 系統의 種菌은 10~28℃(最適 16~25℃)이고, 低溫性 系統은 4~20℃(最適 7~18℃)이다. 期間은 4~6日 實施하고 비닐등으로 덮어서 保溫 및 保濕을 效果의으로 行한다.

8. 하우스內에서의 楢木展開 및 管理

發生한 버섯의 生育은 溫濕度, 光線등에 依하여 크게 左右되므로 무척 重要하다. 生育에 適當한 溫度는 7~26℃, 濕度는 60~90%範圍이다. 普通 7~10日이 經過하면 完全히 生育한다. 暖房으로 因하여 하우스內가 乾燥하면 濕度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거적이나 비닐등을 덮어주어 適當한 濕度를 維持하도록 管理해 준다.



《 하우스內的 發生楮木의 濕度調節 》

9. 收 穫

표고버섯은 그 形狀 및 色澤, 特히 開傘程度 등에 따라서 品質이 左右되므로 收穫期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버섯이 60 ~ 70 % 開傘되었을때 採取하되, 採取時 傷處가 나지 않도록 하며, 버섯의 品質을 上中下로 區分하여 各各 다른 容器에 採取하면 버섯의 選別 및 包裝時間을 短縮시킬 수 있다. 採取容器는 큰 버섯이 傷하지 않도록 깊이가 얇고 넓은 것이 좋다. 1日 1~2回 適期收穫을 實施해야 良質의 버섯을 生産할 수 있다.

10. 楮木의 休養

採取가 完全히 끝난 楮木은 하우스內的 休養室로 옮겨 層積하여 撤水한 다음 (楮木水分이 30 % 以下로 떨어지지 않도록함) 비닐이나 거직등을 덮어놓는데 보통 30 ~ 40日間 休養시킨다. 休養中 楮木이 過乾하면 그때마다 1日 3時間씩 3日 繼續 澆水해 주어야 한다.

11. 結 言

표고促成 (施設) 栽培는 在來式 栽培方法에 依하여 施設投資가 先行되어야 하고, 副業으로는 多少 無理가 있다는 短點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豫見되는 楮木資源의 不足에 對備하여 原木을 效率의 으로 利用한다는 大 前提아래 버섯品質이 均一하고, 항상 新鮮한 생표고버섯을 出荷하며, 資本의 回轉이 빠른등 栽培方法의 省力化로 因한 버섯生産의 生産性向上으로 國際市場의 購賣力과 競爭力까지 向上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 分野의 技術開發과 施設投資가 活發히 이루어질때 우리의 버섯産業은 한층 더 繁盛할 것이다. (林業技術速報 53號 複製)

地方道路 街路樹를 포플러로

— 植栽管理를 希望者와 契約, 產物을 讓與 —

本會理事(慶北) 朴 明 洙

街路樹는 地域特性을 살려 樹種의 選擇이나 美的景觀을 감안하여 잘 植栽管理하여야 됨은 두 말할 나위없다. 그래서 都市의 街路樹는 樹形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剪定도 하고 또 電線柱의 障礙物이 되거나 交通案内板의 視野를 가리는 경우도 있어 適當한 剪定을 하는등 必要한 管理를 하고 있는 줄 안다.

그런데 繁雜하지도 않은 한적한 農村 郡單位 以下の 地方道 街路樹를 그 樹種의 特性도 無視한 채 一律的으로 剪定을 하여 그 자람새 모양이 오히려 剪定을 하지 않는 것만 같이 못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即 버즘나무(프라다나스)와 같이 剪定을 하면 樹形이 아름답게 잘 잡히는 樹種이 있는가 하면 포플러 種類와 같은 樹種(이태리포플러, 현사시등)은 剪定을 하면 盟芽가 모두 하늘로 치솟는 直立形이 되어 오히려 斷幹을 하지 않고 그대로 키우느니만 같지 못하다. 더구나 요즈음 포플러 原木求得名이 甚하므로 한적한 農村街路樹는 希望者에게 이태리포플러를 심도록 하고 向後 成木이 되었을때 產物을 無償讓與하는 條件으로 契約管理케 하는 制度가 있었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植栽管理에 必要한 地方費豫算도 節減될 뿐만 아니라 街路樹가 單純한 街路樹機能만 이 아니라 木材生産의 機能도 겸하게 됨으로 一舉三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山林愛護의 積極的인 教育, 弘報活動을 바란다 —

本會理事(慶北) 金 應 九

1984年 日本 보이스카웃團員이 慶北 安東 하회마을을 訪問하였을때 현장 인솔教師를 感動시킨 事例 한가지를 紹介하고자 한다.

日本 初等校生들이 우리나라에 來韓하여 野營場 天幕設置 作業中에 天幕끈을 동여멜 나무가지가 행여나 傷處라도 입을가 보아 동여멜 자리에 먼저 종이를 감고 그 위에 끈을 매는 광경을 보고 感嘆하였다고 전해왔다. 이것이 어찌 그 引率教師만의 感嘆이라.

우리도 每年 4月5日 植木日 前後에만, 또는 산불이 났을 때만, 짝짝 하는 나무사랑 弘報를 할 것이 아니라 初中高 教科書등에 좀 더 많은 比重으로 나무사랑이 곧 나라사랑, 愛國이라는 點을 강조하는 教科內容이 되도록 하고 매스컴을 통한 弘報도 나무를 素材로 한 內容의 것이 많도록 積極的인 弘報와 함께 이제는 植木日이 休日이 아닌, , 나무심고 가꾸는 날임을 徹底히 認識시켜야 하겠다.

消 息

- 西海開發(株) 權五振代表理事님의 長女 賢淑孃의 結婚式이 5.6 木花예식장에서 있었음.
- 本會理事 西大門企業(株) 會長 孫錫演氏 三男 晟源君의 結婚式이 5.29 明洞大聖堂에서 舉行
- 本會理事이시고 原州商工會議所 會長 (보금당 대표) 韓昇龍氏가 1個月 여정으로 유럽등을 巡訪 次 5.28 出國
- 本會理事 韓喆雄氏는 堤川市長 趙南星씨와 함께 日本의 長井市를 방문, 堤川市와 結緣을 맺고 지 난 6.5 귀국
- 林友會 定期總會 ; 5.22 우이동 월벽장에서 第3回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85 決算, '86 豫算案을 通過시켰으며 任期만료에 따른 새로운 任員選出에서는 現任員을 全員 留任시키고 副會長에 金甲 成, 安教純 理事에 崔汝植氏를 追加로 選任하였다.
- 京畿林試會 定期總會 ; 第11回 定期總會를 6.14 烏山에 있는 京畿道 林業試驗場에서 開催
- 本會慶北支部懸板式 : 本會 慶北支部는 榮州市榮州1洞 7-38에 事務室을 마련하고 지난 6.10 本會 韓榮錫會長을 비롯, 管内 會員 多數와 各級 機關 山林關係官이 參席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 진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韓榮錫 會長은 그동안 苦生한 會員들의 勞苦를 致賀하고 慶北道支部旗 를 전달하였다.

音 訃

- 本會 박용목 (78歲) 會員이 5.8 경북의성군전곡면서변리 自宅에서 老患으로 別世
- 本會 創設會員이시고 理事이신 尹瑜炳 (67歲) 會員이 6.9 高혈압으로 別世 두분의 명복을 빕니다.

— 會員여러분의 原稿를 환영합니다. —

- 造林, 育林등 山林經營에 새로운 技術소개.
- 收益性 좋은 山林所得源 소개
- 其他 山林經營에 참고될만한 일들, 體驗手記, 나의 提言, 建議事項등
- 會員動靜 (慶弔事, 事業關係, 住所變更, 社會活動, 海外出張소식등 近況)

< 會費를 納付하신 분 > (5.15 ~ 6.10)

韓 榮 錫 (會 長)	1,000,000	韓 洙 (辯護士)	30,000
柳 寧 默 (慶北支部長)	250,000	김 광 진	20,000
朴 浩 鎮 (有 備 物 産)	300,000	윤 영 학	20,000
李 陽 雨 (忠北支部長)	100,000	이 건 진	20,000
吳 昇 煥 (本會理事)	200,000	남 익 순 (구인사)	20,000
金 良 濟	30,000	전 석 운	20,000
孫 昌 根	20,000		

— 協會費는 가급적 上半期에 納付하시기 바랍니다. —

- 計座番號
- 서울신탁은행 : 19501-84009872
 - 농협중앙회 : 001-01-025926
 - 국민은행 : 093-24-0025-624
 - 우 체 국 : 011809-001478012